

# IMF, 아랍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
2014. 10. 13.

두바이사무소

- (개요) IMF는 올해 상반기 ‘World Economic Outlook(‘14. 10. 7)’을 통해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감안해 아랍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
  - 그러나, 산유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대
- (MENA) ‘14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.6%에서 2.6%로 1.0%p 하향 조정
  - (‘15년 경제성장률) 종전 4.5% → 3.6%로 0.9%p 하향조정
  - (하향조정 원인)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
  - 리비아 등에서 생산이 중단되었던 유전의 원유생산 재개로 인해 ‘14년 대비 ‘15년 경제성장률은 개선
- (이라크) ‘14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5.9%에서 2.7%로 3.2%p 하향 조정(MENA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조정)
  - (‘15년 경제성장률) 종전 6.7% → 3.9%로 0.9%p 하향조정
  - (원인) 이라크 이슬람 세력과 미국 지지 세력간의 분쟁
- (GCC 6개국) ‘14년과 ‘15년 평균 4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
  -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UAE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

- (UAE) 정치적 안정으로 GCC중 가장 큰 폭으로 FDI가 증가하고 있어 '14년 4.8%, '15년 4.5% 성장 예상
- (사우디아라비아) '14년 4.6%, '15년 4.5% 성장 예상
- (카타르) '14년 6.5%, '15년 7.7% 성장 예상
- 非Oil 부문 성장이 6%로 두드러지며, Oil 부문은 0.5% 성장
- 단, 원유 수요 감소와 OPEC의 증산 결정에 따른 유가 하락은 주의 요소임

□ (비GCC 산유국) '14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.25%에 불과 (이란 제외)

- ('15년 경제성장률) 3% 수준 예상
- (낮은 '14년 경제성장률 원인) 정치 불안과 안보 문제
- '15년에는 이라크, 리비아 및 예멘에서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'14년대비 경제성장률 상승

□ (이란) '13년 경제성장률이 1.9%에 불과하였으나, 현재 회복세

- '14년 1.5% 성장이 예상되며, '15년 2.2% 성장 예상

□ (이집트) '14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2.3%에서 2.2%로 0.1%p 하향 조정

- ('15년 경제성장률) 종전 4.1% → 3.5%로 0.6%p 하향조정

□ (튀니지) '14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.0%에서 2.8%로 0.2%p 하향 조정

- ('15년 경제성장률) 종전 4.5% → 3.7%로 0.8%p 하향조정